

GGM 공개 채용에 연인원 3만5000명 지원했다

6년 동안 20차례...평균 '34.1대 1' 높은 경쟁률 보여
고졸부터 석사까지 다양...유학과 등 우수 인재들도

2019년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설립 이후 총 20회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연인원 3만4928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GGM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법인을 설립한 뒤 2020년 6회와 2021년 5회에 걸쳐 총 689명의 직원을 뽑아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스퍼의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2025년까지 4년간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10명에서 57명까지 선발해 왔다.

2026년 1차 기술직 및 일반직 신입·경

력사원 채용 원서 접수는 지난달 19일 마감했는데 총 1597명이 지원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로써 지난 6년 동안 20회의 공채에 연인원 3만4928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34.1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GGM의 공채마다 젊은이들이 대거 몰린 것은 광주지역의 심각한 취업난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GGM이 가뭄 속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올해 1차 공채 지원자들은 고등학교 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전경

업자부터 전문학사, 학사, 석사, 해외 유학 파까지 다양했으며, 나이도 10대부터 60대까지 전체 연령층에 분포됐다.

특히 해외 유명 공과대학 학·석사 출신과 해외 기술전문대학 졸업자 등이 포함돼

한층 높아진 GGM의 위상과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또 2020년과 2021년 등 초창기 공채에는 광주·전남 출신이 95%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12%가 타 시·도 출신이어서, 이들

이 합격할 경우 광주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공채 지원 범위가 지역 기반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까지로 넓혀져 GGM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번 공채 전체 지원자 가운데 33.7%(538명)가 과거 불합격 이후 다시 응시한 재도전자인데, 일부는 합격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지원이나 일시적 관심이 아니라 GGM에 대한 지속적인 선호와 기대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GGM에서 이직했다가 GGM에서의 근무환경과 일에 대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다시 지원하기도 하고, 형제·부부 근무자도 늘어나고 있다.

GGM 관계자는 "이번 공채에 다양한 학력 소지자와 전체 연령층에서 지원자가 대거 몰린 것은 글로벌 자동차 위탁 생산업체로 도약하고 있는 GGM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쾌적한 근무환경에 대한 공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GM의 위상과 인기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취업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2교대 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GM은 3일 서류 전형 합격자 150명을 선발한 뒤, 면접 전형과 건강 검진 등을 거쳐 3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제주항공, 객실승무원 스니커즈 근무 제주항공이 객실승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비상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근무화로 스니커즈를 전면 도입한다. 제주항공은 모든 객실승무원에게 스니커즈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공식 근무화로 적용한다.

전남 TP, 과학문화 모델 우수성 확인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서 '매우 우수'

(제)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의 과학기술문화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의 우수성이 확인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025년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전남과학문화거점센터가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개 지역과학문화거

점센터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체계 및 성과, 예산 집행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개 심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기술문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혁신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전남 특화산업과 지역자원을 연계

한 전남형 맞춤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도민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특색이 반영된 과학문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진 전남형 과학문화 방향성이 올바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산업·교육·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민 누구나 과학을 즐기고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과학문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불황 뚫은 우먼파워’...여성기업 매출액 상승

중기부, 실태조사...2024년 평균 15%·순이익 9.3% 증가
부채비율은 30%p 줄어...“AI·바이오·팜테크” 집중 육성

2024년 여성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경영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액은 15% 증가하며 22억원을 넘어섰으며, 부채비율은 대폭 낮아지고 연구개발(R&D) 투자는 늘어나는 등 질적 성장세도 뚜렷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는 2024년 기준 여성기업의 경영 성과와 성장 활동,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가승인통계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여성기업의 매출액은 629조5143억3100만원, 당기순이익은 20조9582억76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2.1%, 16.0% 증가했다.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2억7000만원으로 지난해(19억8000만원) 대비 15.0% 증가했다. 영업의 수익을 나타내는 평균 당기순이익 역시

80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7000만원)보다 9.3% 늘었다.

재무 구조와 생산성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부채비율은 91.9%로 전년(123.1%) 대비 31.2%p나 하락해 재무 건전성이 강화됐으며,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억7500만원으로 전년(2억8000만원)보다 증가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활발했다. 기업당 평균 R&D 투자 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9% 급증했다. 수출 평균 금액 또한 29억원으로 11.9% 늘어 여성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8.3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종사자 수가 각각 평균 4.1명으로 동일해 성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기업인 스스로 꼽은 강점은 '섬

세함'(56.0%)이 가장 높았고, 약점으로는 '도전 정신'(36.5%)을 들었다.

남성 기업인 대비 불리하다고 느끼는 점으로는 '일·가정 양립 부담'(15.2%)을 1순위로 꼽았다.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으로는 '세계 지원'(37.2%)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자금 지원(29.1%), 인력 지원(14.5%), 판로 지원(14.3%)이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기획·점검·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 공개한 '제2차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를 반영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 통계인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문항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여성기업 신산업 진출을 돕고자 인공지능(AI)·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로 여성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팜테크(FemTech)'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게임혁신 기업 발굴

6일까지 모집...창의적 개발환경·안정적 성장 지원

전남글로벌게임센터가 지역 게임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 유망 기업 발굴에 나선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 게임 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게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남글로벌게임센터'의 2026년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지역 특화 게임 산업의 거점으로, 창의적인 게임 콘텐츠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모집은 나주 혁신도시 내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발한 역량 있는 게임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게임 콘텐츠 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전남 나주시 그린로 317-13에 위치한 해송타워 4층과 5층 총 2개실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6일까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하드웨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주)대선소방설비산업

(주)대선이엔지

(주)대선산업개발

(주)일등소방

(주)유덕전기소방공사

(주)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6

☎ Tel : 062-381-7119